

■ [공통: 독서·문학]

01. ② 02. ⑤ 03. ③ 04. ② 05. ② 06. ⑤ 07. ⑤ 08. ① 09. ① 10. ⑤
 11. ④ 12. ④ 13. ③ 14. ③ 15. ③ 16. ⑤ 17. ⑤ 18. ⑤ 19. ① 20. ②
 21. ⑤ 22. ④ 23. ③ 24. ⑤ 25. ③ 26. ④ 27. ② 28. ① 29. ② 30. ①
 31. ③ 32. ④ 33. ② 34. ③

[1~3] 독서

[1-3] 독서 이론,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읽기 양상의 변화’

지문해설 : 이 글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정보 탐색을 위한 읽기 양상의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독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정보 검색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내용과 형식에 부합하는 맞춤형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는 부정확하거나 편견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원래 자료의 작성 의도나 맥락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독자는 인공지능 이용, 인터넷 검색, 다른 책과의 비교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를 점검하며 읽어야 한다.

[주제]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의 특징과 읽기 방법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독자의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얻을 수도 있기에 지식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자료의 정보는 독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독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내용과 형식에 부합하는 독자 맞춤형 자료를 생성하여 읽을 수 있다고 하였다. ③ 1문단에서 필요한 자료를 언제든지 곧바로 만들어 주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 독자는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인공지능을 통해, 읽을 자료를 생성하여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④ 4문단에서 독자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를 점검할 때 필요한 경우 다른 방식의 인공지능을 통해 내용을 비교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⑤ 2문단에서 독자가 여러 정보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정보 검색에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2.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A]에서 인공지능은 방대한 규모의 정보를 사전에 학습하고, 독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조합하여 자료를 생성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공지

능이 학습한 정보에 문제가 없더라도 정보의 추출 및 조합 과정에서 독자의 요구나 선호에 부합하는 일부 정보만 편중되게 발췌하거나 일부 해석을 누락하기도 하는 정보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사전에 학습한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자료 생성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인공지능은 정보의 추출 및 조합 과정에서 독자의 요구나 선호에 부합하는 일부 정보만 편중되게 발췌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② 인공지능은 방대한 규모의 정보를 사전에 학습한 후, 독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조합하여 자료를 생성한다고 하였다. ③ 인공지능이 학습한 정보에 인종, 지역, 성별 등에 대해 편견이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④ 인공지능이 정보를 추출 및 조합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자료가 가지고 있던 작성 의도나 맥락이 훼손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3.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보기>에서 학생이 체독에 관한 동양의 다양한 사례를 더 생성하여 읽다 보니 동양의 사례만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 방향을 달리하여 다양한 지역과 시대의 체독 사례를 생성해서 읽어 보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생이 ‘방향을 달리하여’ 자료를 생성한 것은, 인공지능에게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의 자료만 생성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학생이 ‘근본적인 의미를 깨달아’라는 말이 어려워 추가적인 자료를 생성해서 알아보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생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생성’한 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출처가 명확한지 점검한 것은 아니다. ② <보기>에서 학생이 생성된 자료에서 ‘동양인의 높은 정신 수준에 적절한 독서 방법’이라는 구절이 마음에 들어, 체독에 관한 동양의 다양한 사례를 더 생성하여 읽어 보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생이 ‘다양한 사례’와 관련된 자료를 생성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내용과 형식에 부합하는 맞춤형 자료를 생성한 것일 뿐, 편견이 있는 표현이 나타나는지 점검한 것이 아니다. ④ <보기>에서 학생이 인공지능이 제공한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생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자료를 읽은 후 ‘인터넷 검색을 해’ 본 것은 출처가 명확한지 점검한 것이다. ⑤ <보기>에서 학생은 인공지능을 통해 알게 된 정보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에서 다른 책을 더 찾아 읽어 보아야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생이 ‘인공지능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책의 내용과 비교하고자 한 것은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정보가 있는지 점검한 것이다.

[4~9] 독서

[4~9] 주제 통합, ‘(가) 대중 예술인 영화와 사회의 관계 / (나) SF의 개념과 장르적 특징’

지문해설 : (가)는 영화에 반영된 사회를 이해하고자 한 크라카우어와 제임슨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지크프리트 크라카우어는 영화의 표면에 드러난 전형적인 모티브나 이미지를 해석함으로써 그 이면에 감추어진 이념을 읽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프레드릭 제임슨은 영화의 서사가 현재를 역사처럼 조망할 수 있게 하여 우리가 속한 사회의 총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고 보았다.

[주제] 영화에 반영된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크라카우어와 제임슨의 견해

지문해설 : (나)는 SF의 현실과 허구에 대한 다르코 수빈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수빈은 기발한 상상력이 촉발하는 경이로움이 SF의 중요한 장르적 특징이며, 이러한 경이로움을 안겨 주는 대상을 노뎀이라고 하였다. 그는 SF가 미래 세계에 대한 상상을 표현하지만, 그 상상이 기반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현실을 닮았지만 현실과는 다른 SF 속의 세계가 인지적 낯섬을 촉발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세계, 즉 유토피아를 탐색하는 SF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주장한다.

[주제] SF의 현실과 허구에 대한 다르코 수빈의 견해

4.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2문단에 따르면, 크라카우어는 사회에서 불순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념은 영화의 이면에 감추어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독일 영화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밀실, 광인, 독재자 등을 담은 이미지의 이면에서 현실 도피의 퇴행적인 심리와 왕정복고를 바라는 정치적 이념을 읽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크라카우어는 밀실, 광인, 독재자의 이미지에서 당시에 불순하다고 여겨지는, 현실 도피의 퇴행적인 심리와 왕정복고를 바라는 정치적 이념을 읽어 낼 수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2문단에 따르면, 크라카우어는 영화에 대중의 취향뿐만 아니라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이 반영되어 있으나, 이러한 이념은 영화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수빈은 미래에 대한 상상을 표현하는 SF의 허구적 설정은 그 시대의 현실과 유사하면서도 다르며, 이러한 SF 속의 세계가 인지적 낯섬을 촉발한다고 보았다. SF의 허구적 설정을 통해 SF 속 세계와 현실 세계 간의 ‘다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나)의 4문단에 따르면, 수빈은 이상적인 세계인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다룬 이야기와 SF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유토피아를 SF의 중요한 소재로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당대에

서 체험할 수 없는 소재를 부적절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 ⑤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수빈은 우리가 SF 속 세계와 현실 세계 간의 '다름'을 인지함으로써 현실에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고 보았다.

5.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가)에서 프레드릭 제임슨은 오늘날의 사회가 분산적이고 파편적이기 때문에 그 총체적인 양상은 시간이 흘러 역사가 된 이후에야 파악되는 것이지만, 영화의 서사가 사건을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한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즉, '역사화'란 영화의 서사가 사건을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하여 총체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은 SF의 서사가 미래를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함으로써, 그 미래 세계가 기반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역사화'는 사건을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하는 것이므로, SF가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묘사하여 사회의 발전 양상에 대한 총체적인 전망을 드러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역사화'는 사건을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하는 것이므로, SF가 현재 진행되는 사건이 미래에 완료되는 내용을 담아 사회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하게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역사화'는 사건을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하는 것이므로, SF가 미래에 일어날 법한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재구성하여 보여 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향점을 제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역사화'는 사건을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하는 것이므로, SF가 미래 시점에서 시작해서 현재 시점을 향해 전개되는 이야기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6. 글에 드러난 관점, 내용 비판

정답해설 : [A]에서 수빈은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세계, 즉 유토피아를 탐색하는 SF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주장한다. 반면 제시된 입장에서는 SF 속 유토피아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듯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붕괴되며, 이러한 결말은 유토피아가 근본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고, 현실 문제에 대한 해답이 현실 너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수빈의 생각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수빈은 오늘날 환경 오염, 전쟁 등으로 인해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현실의 부정적 양상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② 유토피아의 근원적인 모순에 대한 인식은 [A]가 아니라 제시된 자료에 나타나 있으므로, 수빈이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수빈은 SF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인간은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낯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충족해 왔다고 하였다. 이에 따를 때, 수빈의 생각이 유토피아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항구적임을 간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SF 속 유토피아는 궁극적으로 외부의 위협이나 내부의 갈등에 의해 붕괴되고 만다고 하였으므로, 현실을 벗어나려는 욕망은 SF의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해소된다고 볼 수 없다.

7.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인지적 낮섬은 작품에 표현된 세계에서 촉발되는 감각적 충격을 통해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는 정서적이고 지적인 체험이라고 하였다. 감각적 충격이 이성적 성찰에 수반되는 체험이 아닌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노BUM은 현실 세계와 SF 작품이 묘사하는 허구적 세계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② 다르코 수빈은 SF에서 당대의 지식, 기술, 경험을 뛰어넘어 경이로움을 안겨 주는 대상을 노BUM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하였다. ③ 노BUM은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요소이자, 또한 작품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장치라고 하였다. ④ 현실을 닮았지만 현실과는 다른 SF 속의 세계가 인지적 낮섬을 촉발하며, SF 속에 등장하는 대상은 현실에서 일상적이고 친숙했던 대상을 낯설고 새롭게 느끼도록 만든다고 하였다.

8.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가)의 2문단에서 영화의 표면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모티브나 이미지가 암시하고 비유하는 것을 해석함으로써 그 이면에 감추어진 이념을 읽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지상'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 내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한 결과가 아니라, 영화의 표면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모티브나 이미지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의 2문단에서 기발한 상상력이 촉발하는 경이로움은 SF의 중요한 장르적 특징이며, SF에 등장하는 장대하고 압도적인 대상들은 광대한 자연을 마주했을 때와 유사한 경이로움을 선사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허공의 도시'와 관련해 언급한 '압도적'인 느낌은 SF의 장르적 특징에 해당하는 것이다. ③ (나)의 1문단에서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다고 해서 SF에서 다루는 소재나 서사가 모두 과학적으로 사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SF에서는 과학적 진위가 아니라 개연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몇몇 장면'의 과학적 오류를 문제 삼지 않은 것은 SF에서 과학적 진위가 아니라 개연성이 중요하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④ (가)의 3문단에서 오늘날의 사회는 분산적이고 파편적이므로, 그 총체적인 양상은 서사를 통한 '역사화'를 통해 조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두 구역의 갈등을 다른 서사가 '우리 사회를 조망하게 한다'라고 언급한 것은 분산적이고 파편적인 사회를

종합적으로 통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가)의 1문단에서 특정 장르가 유행했다가 침체되는 현상이나, 장르의 전형적인 관습이 형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에는 대중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최근 ‘SF 영화의 경향’이라고 간주한 ‘갑작스러운 화해’는 대중의 취향이 영화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 ‘둔다고’와 ㉡의 ‘두고’는 모두 ‘행위의 준거점, 목표, 근거 따위를 설정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그리고 ㉢ ‘두고’와 ㉣의 ‘두었던’은 모두 ‘세상이나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고 얼마간 떨어져 있다.’의 의미로 쓰였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두지’는 ‘생각 따위를 가지다.’의 의미로 쓰였고, ‘두었던’은 ‘진영 따위를 설치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 ‘두느냐’와 ‘두려고’는 모두 ‘행위의 준거점, 목표, 근거 따위를 설정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 ‘두고도’는 ‘가져가거나 데려가지 않고 남기거나 버리다.’의 의미로 쓰였고, ‘두게’는 ‘세상이나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고 얼마간 떨어져 있다.’의 의미로 쓰였다. ㉤ ‘두었다’는 ‘중요성이나 가치 따위를 부여하다.’의 의미로 쓰였고, ‘두고’는 ‘어떤 상황이나 상태 속에 놓다.’의 의미로 쓰였다.

[10~13] 독서

[10~13] 사회, ‘공공 저널리즘’

지문해설 : 이 글은 공중의 관심사를 보도의 중심 의제로 삼는 공공 저널리즘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다루고 있다. 리프만은 공중이 고정 관념을 지니고 있으며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므로 언론이 공중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듀이는 공중을 합리적 존재로 간주하며 언론이 공중을 공적 담론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로젠은 공공 저널리즘이 공중을 공공 문제의 잠재적 참여자로 간주하고,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을 공론장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실제 문제 해결을 담보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공공 저널리즘은 언론이 공중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언론의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마이어는 방법론적 객관주의를 통해 그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주제] 공공 저널리즘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공공 저널리즘의 의의

10.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리프만은 언론인의 전문화를 통해 공중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언론인의

전문화가 어떠한 제도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듀이는 공중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다고 하였다. ② 1문단에서 공공 저널리즘은 공중의 관심사를 보도의 중심 의제로 삼는다고 하였다. ③ 1문단에서 20세기 중·후반에 언론이 주로 권력 집단과 관련된 사안을 피상적으로 보도하는 경향 때문에 보도 내용이 공중의 일상과 괴리되었고, 이에 따라 공중은 뉴스를 기피하였다고 하였다. ④ 4문단에서 공공 저널리즘이 언론의 객관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비판에 대해 마이어는 공공 저널리즘이 방법론적 객관주의에 중점을 둔다고 주장하며, 취재 과정에 사회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주관성이 개입되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하였다.

11.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서 듀이는 파편화된 공중의 유기적인 결합을 위해 언론이 공적 담론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였으므로, ㉠은 공공 저널리즘이 취재와 보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중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3문단에서 로젠은 공공 저널리즘은 공중을 공공 문제의 잠재적 참여자로 간주하고,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공론장에 참여하여 공공 문제의 해결 방안이 원활히 토의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중이 공공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논의에 참여할 때 실현 가능하다는 것은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을 위해서는 언론이 공적 담론의 장을 형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공중이 각자의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공공 저널리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리프만의 견해이므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에서 듀이는 언론이 공적 담론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언론 보도를 통해 공공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공중은 합리적인 존재로,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이성적인 공적 담론의 장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중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공 문제를 해결했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은 공공 저널리즘의 목적인 공론장의 형성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공중이 공공 저널리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이라는 것은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은 공공 저널리즘의 목적인 공론장의 형성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즉 ㉠은 공공 저널리즘의 취재와 보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중의 상태를 의미하므로, 공중이 공공 저널리즘의 취재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지녀야 할 요건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2.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사례 2]에서 △△ 신문사는 국제 행사 유치와 관련된 집단 인터뷰, 회의

등을 통해 행사 유치를 강력히 원하는 지역민의 입장에 동화되어 전문가의 의견과 달리 B 지역이 적합한 후보지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B 지역은 행사 개최지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로젠은 △△ 신문사가 집단 인터뷰, 회의 등을 마련한 것은 공론장을 형성한 것이므로, B 지역의 행사 개최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공론장을 형성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으며, 공공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마이어는 △△ 신문사가 지역민의 입장에 동화되어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B 지역이 적합하다고 보도한 것은 주관성이 개입되어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것이므로 공공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목적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공론장에 대해 듀이는 공중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곳으로 보았고, 로젠은 공중이 공공 문제의 해결 방안을 토의하는 곳으로 보았다. [사례 1]에서 지역 자문단 회의와 시민 포럼은 공론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례 1]에서 A 지역의 범죄율이 크게 낮아진 것에 대해 듀이와 로젠은 모두 공공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공중이 변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것이다. ② 듀이는 공적 담론의 장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례 1]에서 ○○ 신문사가 지역민, 사회지도자,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한 것은 언론이 공적 담론의 장을 이끌어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듀이는 이에 대해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것이다. ③ 3문단에서 공공 저널리즘이 활용하는 사회 과학적 방법으로 설문, 회의, 집단 인터뷰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마이어는 공공 저널리즘이 대상 선정, 자료 취합 및 분석 등의 취재 과정에 사회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론적 객관주의에 중점을 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례 1]에서 ○○ 신문사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지역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단 회의의 논의 결과를 취합하고 분석한 것에 대해 마이어는 취재 과정에 사회 과학적 방법을 사용했다고 평가할 것이다. ⑤ 리프만은 공중이 공공의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므로, 언론인의 전문화를 통해 언론이 공중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례 2]에서 △△ 신문사가 지역민과 인터뷰하고 수차례 회의하며 논의한 것에 대해 리프만은 신문사의 취재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할 것이다.

13.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깨달다’는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 따위를 생각하거나 궁리하여 알게 되다.’는 의미이다. ㉠은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을 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을 ‘깨달을’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동떨어지다’는 ‘둘 사이에 관련성이 거의 없다.’는 의미이다. ㉡는 ‘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짐.’의 의미이므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② ‘멀리하다’는 ‘어떤 사물을 삼가거

나 기피하다.’는 의미이다. ④ ‘알맞다’는 ‘일정한 기준, 조건, 정도 따위에 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한 데가 있다.’는 의미이다. ㉔는 ‘일이나 조건 따위에 꼭 알맞음.’의 의미이므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⑤ ‘이루어지다’는 ‘어떤 대상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나 결과가 생기거나 만들어지다.’는 의미이다. ㉕는 ‘목적한 것을 이룸.’의 의미이므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14~17] 독서

[14~17] 기술 ‘오디오 신호 압축’

지문해설 : 이 글은 소리 저장 방식의 발달과 오디오 압축 기술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소리를 저장하는 방법은 축음기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소리를 디지털 신호, 즉 이진수로 이루어진 오디오 신호로 바꾸어 파일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디지털 오디오 파일은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에는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디오 신호를 압축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인간의 청각 특성을 활용한 지각부호화를 이용한다. 지각부호화는 최소가청강도, 차폐, 임계대역, 차폐 문턱값 등을 활용하여 감도가 낮은 소리를 제거하고 각 임계대역마다 다른 개수의 비트를 할당하여 소리의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기술이다.

[주제] 소리 저장 방식의 발달과 청각 특성에 기초한 지각부호화의 원리

14.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2문단에서는 오디오 파일의 압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을 뿐, 소리의 크기가 압축의 변수라는 점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모든 소리 크기에는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고 하였으므로, 소리 크기와 청각 특성을 압축의 두 변수로 파악하고 읽은 것은 적절한 읽기 방법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축음기의 원리를 중심으로 초기 녹음기의 소리 저장 방법을 설명하였고, 2문단에서 소리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파일로 저장하는 현재의 소리 저장 방법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1문단과 2문단에서 설명한 내용의 차이점을 이해하며 읽은 것은 적절한 읽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 저장된 오디오 파일은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에는 데이터 양이 많다고 하였다. 이어서 저장 공간을 아끼고 전송이 가능하도록 오디오 신호를 압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므로 오디오 파일을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의 난점을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난점으로 인한 오디오 신호 압축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읽은 것은 적절한 읽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최소가청강도의 의미를 제시하고, 주파수별로 최소가청강도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고 설명하였다. 최소가청강도에 대

한 설명 내용을 바탕으로 소리의 감지와 주파수의 관계를 이해하며 읽은 것은 적절한 읽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⑤ 4문단에서 차폐, 임계대역, 차폐 문턱값 등을 활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요소와 원리를 설명하였고, 5문단에서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에 따라 비트를 할당하고, 차폐 문턱값보다 작은 소리들은 제거하여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4문단에서 오디오 신호 압축에 관여하는 요소를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5문단에 제시된 압축의 과정을 이해하며 읽은 것은 적절한 읽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한 파일 내의 오디오 신호에는 모든 소리 크기에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고 하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축음기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축음기는 초기 녹음기로서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한다고 설명하였다. ② 1문단에서 소리는 나팔의 진동으로 바뀌고 진동의 형태를 따라서 바늘이 판에 홈을 만들어 소리를 저장한다고 하였다. 2문단에서는 현재는 초기 녹음기와 달리 소리를 이진수로 이루어진 오디오 신호로 바꾸어 파일로 저장한다고 하였다. 즉 오디오 신호의 이진수도 저장된 소리에 해당한다. ④ 2문단에서 오디오 파일은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에는 데이터 양이 많아 오디오 신호를 압축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비트를 많이 사용하면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여 네트워크 전송에 어려움이 따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소리를 디지털 신호, 즉 오디오 신호로 바꾸어 파일로 저장한다고 했으므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할 때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6.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 두 소리의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차폐가 쉽게 일어나고, 주파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을 임계대역이라고 하였다. 차폐음과 어떤 소리의 주파수 차이가 임계대역의 폭을 벗어나면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최소가청강도는 조용할 때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이라고 하였다. 최소가청강도는 주파수의 최소값이 아니라 소리 크기의 최소값을 의미한다. ② 4문단에서 임계대역은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이라고 하였다. 즉 임계대역은 차폐음보다 낮은 주파수도 포함한다. ③ 3문단에서 100 Hz 이하의 저음에서는 1,000 Hz부터 10,000 Hz 사이보다 훨씬 큰 소리여야 들을 수 있다고 했으므로 저음의 최소가청강도가 고음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4문단에서 임계

대역의 폭은 차폐음의 주파수에 따라 다른데 고음에서는 저음에서보다 임계대역이 훨씬 넓다고 하였다. 즉 저음의 임계대역이 고음의 임계대역보다 넓지 않다. ④ 4문단에서 큰 소리로 인해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상을 차폐라고 하며 차폐를 일으키는 큰 소리를 차폐음이라고 하였다.

17.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C의 소리 크기는 63dB, 차폐 문턱값은 38dB로 그 차이는 25이고, D의 소리 크기는 55dB, 차폐 문턱값은 6dB로 그 차이는 49이다. 5문단에서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해당 소리 크기에 비트를 많이 할당한다고 했으므로, C의 소리 크기보다 D의 소리 크기에 더 많은 비트가 할당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최소가청강도는 조용할 때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이라고 하였고, 4문단에서 차폐 문턱값은 차폐를 고려한,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이라고 하였다. <보기>의 A는 최소가청강도와 차폐 문턱값이 같아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 A의 최소가청강도와 차폐 문턱값은 38dB인데, 소리 크기는 그보다 작은 30dB이므로 A를 들을 수 없다. ② D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차폐 문턱값은 6dB이고, 소리 크기는 55dB이다. 따라서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인 차폐 문턱값보다 소리 크기가 크기 때문에 D를 들을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오디오 파일을 압축하기 전에는 모든 소리 크기에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5문단에서 지각부호화를 통해 압축할 때 각 임계대역마다 다른 개수의 비트를 할당하며,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해당 소리 크기에 비트를 많이 할당하고 차폐 문턱값보다 작은 소리들은 제거한다고 하였다. A와 B의 소리 크기는 30dB로 동일하지만, A는 소리 크기가 차폐 문턱값보다 작아서 제거되고, B는 소리 크기가 차폐 문턱값보다 커서 비트가 할당된다. 따라서 A와 B는 같은 개수의 비트가 할당되지 않는다. ④ A와 C의 차폐 문턱값은 모두 38dB로 같지만, 주파수는 각각 150Hz와 1,500Hz로 다르다. 4문단에서 임계대역의 폭은 차폐음의 주파수에 따라 다른데, 고음에서는 저음에서보다 임계대역이 훨씬 넓다고 했으므로, 주파수가 A보다 높은 C의 임계대역 폭이 넓다.

[18~21] 문학

[18-21] 고전산문 - 작자 미상, '이화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작자와 창작 연대가 알려지지 않은 국문 고전 소설이다. 임진왜란 이후 시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장수 이화가 혼령인 이여백의 도움을 받아 요괴를 퇴치하고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사의 전반부는 우리나라를,

후반부는 중국을 배경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가운데,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요괴 퇴치 설화를 흡수하여 새로운 서사로 구성한 만큼 전기 소설과 영웅 소설의 성격이 함께 나타난다.

[주제] 요괴와 맞서 싸워 승리한 이화의 활약상

18.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백발 노옹과 노파가 ‘살리라’고 ‘소리 지르’자 ‘성안의 제군이’ 다 쓰러지지만 이화가 정신을 차려 ‘모든 군사는 창검을 발하여 저 요괴를 잡으’라고 명령한다. 이에 ‘모든 군사와 백성이 겨우 정신을 차려’ 나무를 베다. 이를 통해 백발 노옹과 노파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고향을 치며 나무를 베는 것은 이화가 아니라 모든 군사와 백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화는 여산으로 가기 전에 자신을 걱정하는 부모에게 ‘소자 듣자오니 사악한 기운이 바른 기운을 범하지 못한다 하오니 과려치 마소서.’라고 말하고 ‘여산에 이르러 도임’하였다. ② 이화가 나무를 베라고 명령하자 모든 관리와 백성이 일시에 이화를 말한다. 이에 이화는 ‘감히 내 명을 거스르느뇨’라고 말하면서 ‘빨리 나무를 베어 착실히 다 잡으라’고 호령한다. 이를 통해 이화가 모든 관리와 백성이 자신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고 나무라며 자신의 뜻을 고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이화가 ‘빨리 나무를 베어 착실히 다 잡으라’고 호령하자 ‘꾸짖는 소리에 산이 무너지고 고을이 터질 듯하니, 모든 군사 문득 두렵고 겁이 나서 일시에 달려들어’ 나무를 베다. 이를 통해 모든 군사가 이화의 호령 소리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화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모든 군사가 나무를 베니 ‘나무 속에 유혈이 낭자하니, 다 실색 창황’하여 이화에게 나무를 베지 말자고 빈다. 이를 통해 모든 군사가 은행나무 속의 유혈을 보고 당황하여 이화에게 나무를 베라는 명령을 거둘 것을 요청했음을 알 수 있다.

19.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

정답해설 : 이화는 상소하며 ‘십여 년에 벼슬을 못 하’였고 ‘성하에 무익’하여 ‘주야에 한이 깊’었음을 밝히는데 ㉠을 통해 벼슬을 못 했던 울분을 해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백에게 들은 대로 ㉡을 통해 여백에게 들은 것과 같이 ‘나무를 베’고 ‘여우를 잡’으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상은 여산에 부임한 원마다 죽자 ‘고을이 황폐하여 인심이 궤란함’에 깊이 근심하다가 이화의 상소를 받고 이화를 여산의 원으로 임명한다. 이를 통해 ㉠은 황폐해진 여산의 인심을 수습하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은 여산에 새로 부임한 이화가 고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한 것이므로 이화 자신에 대한 신임을 되찾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 ③ 이화의 부모는 이화에게 ‘여산 가는 원마다

죽는 자 삼십여 인이라.’ 하며 이화에게 여산에 ‘가지 말’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은 이화의 부모가 이화의 안위를 염려하는 이유가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은 이화가 여산 백성들에게 ‘천신이 강림하여 여러 원님의 원수를 갚’았다고 인정받는 계기가 될 뿐 상의 권위를 확인하게 되는 계기로 보기는 어렵다. ㉢ 군사들은 이화의 명령인 ㉣을 받들어 ‘나무를 베’고 요괴를 죽이게 되었으므로 이를 계기로 군사들이 이화를 외면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군사와 백성들은 이화의 명을 받들어 ㉤이라는 결과에 이르자 변란을 해결하고 ‘태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으므로 ㉣을 근거로 이화가 백성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은 이화가 여산의 사변을 해결하기 위해 몸소 행한 것으로 백성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행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은 이화가 여산의 괴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을 사람들과 함께 이룬 일이지 ㉣을 통해 관리들에 대한 반감을 표출한 것은 아니다.

20.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의 ‘이 나무 베시면 ~백성이 다 죽기 쉽고 성주께도 화 있사온가 하나이다’라는 말에서 모든 관리와 백성들이 은행나무를 베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상인 은행나무가 백성과 군사들은 물론 상대방인 이화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B]의 ‘성주의 명공 신기 ~ 이와 같사오니 이제는 태평을 누릴 줄 어찌 알았으리오’라는 말에서 상대방인 이화가 모든 군사와 백성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

㉠ [A]는 여산의 관리와 백성들이 상대방인 이화에게 한 말로, 나무를 베면 백성들과 이화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다. 이는 은행나무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전한 것일 뿐 이러한 믿음이 사실과 일치함을 이화에게 전한 것은 아니다. [B]는 이화 덕분에 요괴로 인한 변란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군사와 백성들이 이화에게 사례하면서 한 말이다. 그런데 처음에 군사와 백성들은 요괴를 잡으라는 이화의 명령을 [A]와 같이 만류했으므로 [B]를 이화에 대한 모든 군사와 백성들의 믿음이 사실로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A]의 ‘나무 위에 백발 노옹과 노파 때때로 나오니’에서 관리와 백성이 목격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나무 베시면 백성이 다 죽기 쉽사오니 성주께도 화 있’을 것이라는 말은 나무를 베라는 이화의 명령을 만류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상대방의 인식 변화를 촉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에서 군사와 백성은 이화와 공유한 경험을 말하며 사례하고 있을 뿐 이화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는 않다. ㉣ [B]에서는 ‘종전 커다란 변란’이 있었던 과거의 상황과 ‘이제는 태평을 누’리게 된 현재의 상황을 대비하여 바람직한 상황을 가져온 상대방인 이화의 업적을 예찬하고 있지만, [A]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 [A]와 [B]에서 모두 상대방인 이화의 지위로 ‘성주’가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나무를 베면 백성들에게 화가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여 나무 베기를 만류하며 성주의 역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달라는 제안은 [A]에서만 나타

나고 [B]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이화는 여백의 조언에 따라 ‘여우’를 잡지만, ‘수여우’만 잡고 암여우는 놓친다. 이는 여백의 말에 따르면 ‘둘을 다 잡아내’지 못하여 이화가 ‘목이 베어지’는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암시하며, 동시에 ‘보고’를 들은 이화가 대경실색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된다. 이를 통해 이화가 여백의 조언을 따랐지만 ‘수여우’가 죽은 것만으로는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① 이화는 ‘상소’에서 ‘여산의 괴변’으로 ‘본국이 위태’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입거하와 사변을 제어’함으로써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여산의 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영웅 소설의 주인공이 위기 해결에 나서는 면모를 보여 주는 것에 해당한다. ② 이화가 ‘매우 노하여 여백을 칼로 당당히 베고자 하니’, 여백은 ‘애걸’하며 요괴를 처치할 ‘좋은 꾀’를 알려 준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여백이 영웅 소설의 일반적인 조력자와는 달리 주인공의 위협과 회유에 의해 조언을 제공하는 모습에 해당한다. ③ 이화는 자물쇠에 갇든 혼령인 여백에게 원을 죽인 정체가 누군지 묻고 ‘천 년 묵은 여우 한 쌍’을 잡는 방법을 듣게 된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현실 세계에 속한 주인공 이화가 초현실적 존재인 여백의 혼령과 교섭하는 전기 소설로서의 특징에 해당한다. ④ 이화는 여백의 혼령으로부터 ‘여우를 잡’는 방법을 듣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백성과 군사의 힘을 빌리고 있으므로, 이화는 여백으로부터 조언을 받았지만 스스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전수받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기>에 따르면, 이는 영웅 소설의 일반적 주인공과는 변별되는 특징에 해당한다.

[22~26] 문학

[22-26] 갈래 복합 - (가) 박목월, ‘경사’ / (나) 이수익, ‘달빛 체질’ / (다) 채제공, ‘용연사기’

지문해설 : (가)는 인생의 황혼기에서 느끼는 긍정적 감정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길’은 인생을 비유한 것으로, 길의 경사는 인생의 황혼기로 접어드는 화자의 처지를 의미한다. 화자는 자신이 늙어가는 일을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듯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일이며, 젊은 시절에 신었던 젖은 구두를 벗고 가쁜한 신발을 신고 내리막을 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침내 도달할 잔잔한 바다처럼 인생의 내리막을 다 걷고 나면 평온한 내면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여긴다. 반복적으로 표현된 ‘신비스러운 경사감’은 자신이 늙어가는 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내면을 강조한 표현이다.

[주제] 나이 들에서 느끼는 가뻔함과 신비로움

지문해설 : (나)는 ‘달’과 ‘달빛’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 태생적인 것이며, 그 사랑이 절대적인 것임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자신의 ‘조상’이 태양이 아닌 달을 숭상했으며, 달빛과 더불어 사는 삶에 행복을 느꼈고, 자신의 ‘피’에 그러한 ‘조상의 달빛 체질’이 녹아 있다고 밝힌다. 그리고 달에 대한 태생적 사랑이 삶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것임을 나타낸다. ‘달의 자장 속에 / 갇히기를 원했던’ 조상들처럼 지금의 자신도 달의 ‘인력’에 끌리고 있다는 것은 자신에게 미치는 달의 무한한 영향력을 강조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주제] 달과 달빛에 대한 태생적이고 절대적인 사랑

지문해설 : (다)는 ‘용연사’라는 집과 관련된 일화를 통해 마음먹기에 따라 대상의 가치가 달라지므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 고전 수필이다. 글쓴이는 ‘용연사’에 사는 사왕에게 한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자신의 집이 작다고 여기는 사왕에게 글쓴이는 마음의 실제 크기는 작지만 마음을 제대로 기르면 천지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을 만큼 크다고 강조하며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주제] 대상을 보는 바람직한 태도와 마음가짐의 중요성

2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에 ~가 열리고 ~에는 ~이 열리는 이 ~한 길은 ~로 기울~’의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나이 들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일임을 부각하고 있다. (나)는 ‘달’과 ‘달빛’의 시어를 반복하여 ‘달’과 ‘달빛’에 대한 화자의 절대적 사랑을 부각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는 ‘경사감’, ‘거리감’, ‘신발’처럼 일부 시형을 명사로 종결하고 있지만, 이는 화자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 뿐 소망하는 바를 이루려는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나)는 ‘달’을 ‘더불어 집으로 돌아’오거나 ‘나를 끌고 있’는 존재로 표현하였지만, 이를 통해 화자가 달을 애정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드러낼 뿐 달이 가지는 의미의 변화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③ (다)에서 글쓴이는 ‘용연사’의 규모가 작다고 여기는 사왕과 달리 집의 규모가 작다고 여기면 작을 수 있지만 크다고 여기면 클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글쓴이는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통해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언급했을 뿐, 세태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⑤ (가)는 ‘오오 기우는 세계여’, (나)는 ‘아, 그것은~’에서 감탄사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대상에서 촉발된 긍정적 정서를 드러낼 뿐 정서의 변화를 부각하지는 않았다. 또 (다)는 감탄사를 활용하지 않았다.

2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6연에서 화자는 ‘그것’ 곧 ‘달’이 멀리 있음에도 태어날 때 떨어져 나간 ‘모

체의 태반'처럼 '나를 끌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화자에게 미치는 달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나타낸다. 6연에는 '그것'이 멀리 있어 아쉬움을 느끼는 화자의 심리나 '모체의 태반'을 통해 아쉬움을 해소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연에서는 '조상'인 '그'가 '달'과 함께 성장했고, '달'과 함께 생활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4연에서는 '조상'이 '일생'을 스스로 달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 나타나 있다. 이는 1연에서 언급한 '달의 숭배자'로서의 '조상'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② 4연에서 '내 몸 안에 피가 되어 돌고 있'는 것은 바로 '일생' 동안 '달의 자장 속에 갇'혀 살기를 '원했던' '내 조상'처럼 자신도 '달빛 체질'임을 나타낸 것이다. ④ 2연에서 '그' 곧 '조상'은 '달'과 함께하는 생활에 행복해하며, 3연에서는 '달'을 그리워하고 '달'을 만나 기뻐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나를 끌고 있다'고 생각되는 '달'에 대한 인식이 '조상'의 인식과 같은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4연에서 화자는 조상처럼 '달'에 끌리어 '달의 자장'에 속하려는 '달빛 체질'을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 6연에서는 이런 관계가 '바닷물'을 끄는 '인력'처럼 매우 강력함을 나타내고 있다.

2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2연과 5연에서는 '길'에 놓인 '자갈'이 빛난다고 했는데, 이는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화자의 긍정적 심리를 '자갈이 빛났다'와 같은 밝음의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다. (나)의 2연에서도 '달빛'이 밝다고 했는데, 이는 달에 대한 긍정적 심리를 '달빛'의 눈부신 속성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각 시에서 '빛나'고 '밝은' 속성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심리를 드러낸 것일 뿐, 희망을 추구하는 화자의 내적 지향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의 2연에서 화자는 황혼기의 자신이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를 벗고 가쁜한 신발을 신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젊음'이 무거운 '젖은 구두'를 신은 것처럼 힘겨웠음을 나타낸 것이다. ② (가)의 3연에서 화자는 경사길을 걸어 '시야가 열리는' '바다'를 만난다고 했고, 그 바다를 '잔잔한' 세계라고 했다. 이는 그가 늙어감에 따라 이르게 된 평온한 내면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③ (나)에 1연에서 화자는 태양 체질을 '뜨겁고 부신' 것으로, '달빛 체질'을 '아늑하고 '조용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체질'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촉각과 시각, 청각 등의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다. ④ (가)의 5연에서는 '해가 저물' 때에 '설레'고, (나)의 3연에서는 '낮'보다 어두운 밤에 '크나큰 기쁨'을 만난다고 하였다. 이는 어두운 속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보편적 인식에서 벗어난 표현으로 화자의 개성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5.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글쓴이에게 자기 집이 작다고 말한 ‘사양’과의 경험을 떠올린 것이다. 이는 자기 집이 제비 둥지를 겨우 수용할 정도로 작다는 뜻의 ‘용연사’로 명명한 이후에도 집의 크기에 대한 ‘사양’이 인식이 변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진술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있겠는가’라는 물음의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사물의 외적 형태, 곧 크고 작음은 처음 생겨날 때 결정된 것이므로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나’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은 성인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마음먹기에 따라 사물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나’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④ ㉠은 ‘굳은 ~ 생각해 보게.’라는 명령하는 표현을 통해 내면의 것으로 시험하면 마음먹기에 따라 사물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런 방법을 권유하려 하고 있다. ⑤ ㉠은 ‘집과 몸’, ‘몸과 마음’, ‘마음과 천지’의 관계를 연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사양’에게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2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에서 ‘저녁 햇살’이 비추는 대상은 ‘바다로 기울’고 있는 ‘길’로 황혼기를 맞이한 화자의 삶을 의미한다. 그 길을 ‘저녁 햇살 속에 자갈이 빛’난다고 묘사한 것은 황혼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낸 것이다. (다)에서 글쓴이는 사물의 ‘큼과 작음이 일찍이 없었던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대처’함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는 대상의 가치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유자남에 유자가 열리’는 것은 자연에 섭리를 따르는 일로, 화자는 자신이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길을 걷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나이 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에서 ‘사양하지 않고 다 수용’한다고 한 것은 사양의 집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글쓴이는 이를 통해 마음먹기에 따라 집이 작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포용하는 삶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은 아니다. ② (가)에서 화자는 자신이 걷는 내리막 경사길을 ‘신비스’럽다고 했는데, 이는 황혼기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다)에서 ‘향기와 빛깔이 한데 모이’는 ‘뜰’은 ‘용연사’의 뜰을 의미하는 것이다. 글쓴이는 이를 통해 자신의 집이 작다고 여기는 사양의 생각을 지적하려 했을 뿐,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가)에서 ‘하늘과 맞닿’아 있는 대상은 ‘바다’를 이르는 것으로, 화자가 내리막길의 끝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여기는 평온한 세계를 의미한다. (다)에서 ‘푸르른 산 빛을 보내오’는 것은 ‘사양’이 집에서 볼 수 있는 자연으로, ‘사양’의 집이 자연을 담을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가)와 (다)에서 자연으로부터 위로받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가)에서 ‘기우는 세계’는 인생에서의 황혼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는 그러한 세계를 신비롭게 인식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화자가 황혼기를 불완전하게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다)에서 ‘편히 여기고

거처하는 집'은 작지만 자기 집에 만족하는 '사향'의 태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27~30] 문학

[27-30] 고전시가 (가) 작자 미상, '화전가' / (나) 작자 미상, '공명을 헤아리니~' / (다) 채헌, '석문가'

지문해설 : (가)는 영남 지역의 내방 가사로 알려진 화전가의 하나이다. 창작 연대와 작가는 미상이다. '화전'이란 꽃을 넣어 부치는 전으로, 조선 시대 부녀자들은 봄에 산에서 이 화전을 부쳐 먹으며 '화전놀이'를 즐겼다. 화전놀이는 시집살이의 굴레에 갇혀 살던 여인들에게 경치 좋은 곳을 찾아 잠시나마 쉼 기회를 주었다. 대부분의 화전가는 화전놀이를 준비하는 과정과 하루를 즐기는 모습, 하산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과 도착한 뒤의 감회 등으로 구성된다. 이 글에서는 화전놀이를 준비하는 과정과 하루를 즐기는 모습, 집으로 돌아갈 시간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모습 등이 나타난다.

[주제] 규중에서 쌓인 괴로움을 풀어내는 여인들의 화전놀이와 그 즐거움

지문해설 : (나)는 세속적 공명의 헛됨을 드러내며 전원에서의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 사설시조이다. 작가는 전원에서의 한가로운 삶과, 삶의 마지막까지 자연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전원생활에 대한 지향

지문해설 : (다)는 조선 정조 때의 학자였던 채헌이 지은 총 2수의 연시조 「석문가」 중 <제2수>이다.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즐거움을 드러내면서 자연물과 함께 살아가려는 바람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주제] 자연을 즐기는 흥취와 삶의 지향

27.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화전놀이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시화세풍 하거들랑 창안백발 흠날리고 / 고향 산천 찾아오마'라는 부분에서, (나)는 전원에서 생활하다가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태평하여 승화귀진하면 그 좋은가 하노라'라는 부분에서, (다)는 자연을 즐기며 살다가 '백구야 백년을 함께 놀자 하노라'라는 부분에서 미래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충신', '성인'을 떠올리는 것을 관념적 사유로 볼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내면을 수양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나)에서 '공명을 헤아리'고, '영욕'을 떠올리는 것을 관념적 사유로 볼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내면을 수양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다)에서는 관념적 사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에서 하루 해

가 짧아 마지못해 일어나는 부분에서 시간의 유한성으로 인한 아쉬움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 (다)에서는 모두 화자의 구체적 행위는 나타나지만, 대상의 유한한 속성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가)~(다) 모두 대상의 이면적 가치를 주목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며, 태도 변화에 대한 의지도 찾을 수 없다. ⑤ (가)에서는 화전놀이 과정에서 공간을 이동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무릉원’, ‘소선의 적벽’, ‘이백의 채석’ 등 동양적 이상향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탈속적 가치의 심화 과정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나)의 ‘동문에 쾌관하고 전려에 돌아와서’를 공간의 이동으로 볼 수는 있으며, 그 과정에서 탈속으로 볼 여지는 있다. (다)에서는 특별한 공간의 이동 과정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28.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은 화전놀이에 참가하는 여성들이 예쁘게 차려입고 장식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자연 경물을 화려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소선의 적벽’은 중국 고사(송나라 때 소식의 「적벽부」)에 등장하는 명승지로, 수려한 경관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대상이다. 화자는 ‘소선의 적벽’과 자신이 즐기는 자연을 견주어 자연 경관에 대한 예찬을 드러내고 있다. ③ ‘서산에 지는 해’라는 시간의 경과를 느끼게 하는 자연물을 통해 화전놀이를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④ ‘헤아리니’라는 성찰의 행위를 통해 ‘영욕이 반이로다’라는 세속적 성취를 추구했던 지나온 삶이 헛된 일일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청산이 둘러 있고 벽수가 유유히 흐르는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며 현재 화자가 탈속적 공간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29.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은 봄(‘불한불열 삼춘’)을 맞이하여 피어난 자연물로, 화전놀이를 할 수 있는 계절이 도래했음을 알려 주는 표지로 볼 수 있다. ㉡는 화자가 자연을 벗으로 여기는 물아일체의 상황에서 친밀감을 느끼는 자연물이므로, 화자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여기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은 화자가 바라보며 태평한 시절을 떠올리는 자연물로, 현실의 한계를 인지하게 하는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는 화자가 친밀하게 어울리는 자연물이므로, 화자가 추구하는 자연 친화적인 삶의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③ ㉠은 화자가 계절감을 느끼게 하는 자연물로, 계절의 변화를 확인하게 해주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는 사계절 어느 때나 볼 수 있는 것으로, 화자에게 특정한 계절을 연상하게 하는 대상은 아니다. ④ ㉠ 다음 구절의 ‘우리 비록 여자라도 이러한 태평세에 아니 놀고 무엇하리’를 통해 ㉠은 화자가 주변의 여인들과 함께 즐기고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는 화자가 자연과 조화롭게 지내는

상황을 드러내는 자연물일 뿐 화자가 주변과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㉔ ㉕ 다음 구절의 ‘우리 비록 여자라도 이러한 태평세에 아니 놀고 무엇하리’를 통해, ㉕는 화자가 시대를 태평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㉔는 화자가 자연과 물아일체의 상황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자연물일 뿐, 화자가 도달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이상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시냇가’는 화전놀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방문한 공간이며, 일상적 생활 공간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에서 ‘시냇가’에 ‘정관’을 ‘걸어 놓’는 것은 일시적인 행동일 뿐 일상적 생활 공간으로서 자연에 머물고자 하는 사대부가의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나)에서 화자는 전원으로 돌아와 ‘앞내’의 ‘고기’를 낚고 ‘뒷뎠’의 ‘약’을 캐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일상적 생활 공간으로서 자연에 머물고자 하는 사대부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㉒ (가)에서 ‘금오산’의 푸름을 보며 충신을 연상하는 것은 사대부가의 여성이 유교적 ‘충’의 가치를 내면화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또 (나)에서 ‘전려’에 돌아와서도 ‘성경현전 헤쳐 놓고 읽’는 것은 사대부가의 남성이 성현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수양하는 유교적 가치를 내면화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㉓ (가)에서 ‘청계변’의 광경을 동양적 이상향인 ‘무릉원(무릉도원)’으로 인식하는 것과, (나)에서 자연을 상징하는 ‘청풍’, ‘명월’을 다룬 것이 ‘대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은 자연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대부가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㉔ (가)에서 ‘부녀자들 함께 즐김’이 ‘이에서 더’하겠냐고 하는 것은 화전놀이에 참가한 사대부가 여성들이 함께 흥취를 느끼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사대부가 여성의 공동체적 흥취를 엿볼 수 있다. (나)에서 ‘풍월’을 벗으로 삼는 것은 사대부가 남성인 화자가 자연을 즐기며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자족적 흥취로 볼 수 있다. ㉕ (가)에서 ‘씩힌 간장’이 ‘오늘’은 쾌하다는 것은 평소 시집살이의 굴레에 갇혀 살던 사대부가 여성이 봄철 화전놀이를 하는 날에 느끼는 한시적인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에서 화자가 ‘백구’와 ‘백년’을 놓고자 하는 것은, 화자가 평생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사대부가 남성인 화자가 지속적으로 만족감을 추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31~34] 문학

[31-34] 현대소설 - 염상섭, ‘두 출발’

지문해설 : 이 작품은 농촌 유지 안양덕 일가를 중심으로 일제 강점기 변화하는 세대에 대응하는 다양한 인물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안양덕은 일제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고 구습을 고수하는 인물이지만, 집안 머슴 원석이 연루된 우발적인 사고로 소작인

이 죽자 일제 경찰의 표적이 된다. 이후 안양덕의 아들인 꼬깔 참봉은 신식 문물을 받아들이고 일제에 협력하는 것이 유리함을 깨닫게 되고, 주인집에서 쫓겨나는 원석은 상경하여 노동자 계층으로 변모할 조짐을 보인다. 이러한 꼬깔 참봉과 원석의 모습은, 봉건적 질서가 해체되는 당대의 상황 속에서 기존의 지주 계층과 몰락한 농민 계층이 일제 권력과 어떤 연관을 맺어 가는지를 보여 준다.

[주제] 일제 강점기 변화하는 세태에 대응하는 다양한 인물의 모습

3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의 따옴표 속의 말을 통해 청년과 원석의 말이 직접 인용의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고 이를 통해 두 인물의 생각이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겠다는 말’을 통해 간접 인용 표현으로 ‘원석’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접 인용 표현과 간접 인용 표현을 혼용하여 원석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여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② [A]에서 ‘원석이는 자기가 ~ 사정을 간단히 말하였다.’와 같은 이야기 외부 서술자의 서술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다. ④ [A]에서 청년과 원석이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는다. ⑤ 작품 밖의 관찰자의 시선으로 원석과 청년이 말하는 행동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인물의 심리 변화는 드러나 있지 않다.

32.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꼬깔 참봉은 양덕영감이 순사에게 끌려가게 된 상황을 알아차리고, ‘그 일이면 내가 자세히 아니 나하고’ 가자면서 자신이 순사와 동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순사가 주인을 부르자 유리로 내다보던 노영감, 즉 양덕영감이 ‘누구든지 나가 보라’고 소리를 쳐 선달이 마당으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선달은 꼬깔 참봉이 아니라 양덕영감을 대신하여 마당으로 나온 것이다. ② “당신이 주인이요?”라는 순사의 물음에 선달이 아니라고 대답하고 ‘뒤로 들어’간 뒤 양덕영감이 나온다. 이를 고려하면 양덕영감은 순사가 주인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순사를 만났을 뿐, 불안한 상황에 처한 선달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순사와의 대화를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 ③ 꼬깔 참봉은 양덕영감이 주재소로 끌려가게 된 상황에서 순사에게 자신이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허리를 굽실거리며 뉘네를 개울려 가며 애원’을 하였을 뿐, 순사가 양덕영감에게 거만한 태도로 응대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⑤ 순사가 양덕영감을 데리고 가려 하자 꼬깔 참봉이 순사에게 자신이 대신해서 가겠다는 제안을 하지만, 순사는 결국 양덕영감과 꼬깔 참봉 모두를 주재소로 데리고 간다.

33.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여겼던 일, 즉 치전이 죽은 일에 대한 소문이 돌아서 그 일을 꼬깔 참봉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원석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치전이 죽은 일을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음을 알게 된 데 따른 반응을 나타낸다고는 볼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에서 원석은 자신에게 ‘죄가 돌아’오는 가정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으면서, 순사에게 끌려가게 된 상황에서의 심리적인 압박 상태를 해소하고자 애쓰고 있다. ③ ㉢에서 서술자는 ‘주재소가 나와 선 지 수십 년 내’라는 시간적인 내력을 따져 보면서, 순사 앞에서 ‘상전 하인이 없’게 된 상황이 매우 이례적인 사건임을 보여 주고 있다. ④ ㉣에서 원석은 양덕 덕으로부터 편잔을 들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덕 덕에 부조에 대해 말하는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을 언급하고 있다. ⑤ ㉤에서 ‘또 다른 청년’은 지부 창립할 때 원조를 청했던 일을 거절당한 경험에서 비롯된 양덕영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지랑대’의 속성에 빗대어 드러내고 있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경관의 앞’에서는 ‘상전 하인이 없었다’는 것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일제 순사의 강압적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된 당대의 상황을 보여 주는 서술자의 말이다. 그러나 이는 신분제의 상하 관계가 흔들린 것이지 역전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똥그란 두 눈을 뚫어 내젓’는 원석의 처에게 꼬깔 참봉이 ‘호령’하는 것은, 원석이 양덕 덕 집안의 머슴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 꼬깔 참봉이 원석의 처에게 호령하는 모습에서 자신의 신분적 지위를 고수하며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② 청년은 ‘그까짓 놈’의 행태를 지적하고 그들도 ‘정신 차릴 날’이 올 거라고 하면서, 신분적 우위를 바탕으로 위세를 떨치던 양덕영감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대가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러한 청년의 말을 통해, 완고했던 신분적 위상이 전통과 근대가 혼재하던 시기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④ 양덕 덕에서 ‘쫓겨나게’ 된 원석은 ‘깨달은 것이 있’다며 ‘사람답게 살아 보겠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서울로 가서 ‘노동을 하면서라도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밝히는 등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결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석의 모습은 기존 삶의 구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수그러진 목소리’ 정도만으로 순사를 대하는 양덕영감과 달리, 꼬깔 참봉은 ‘굽실’대며 ‘쉴네’라고까지 하는데, 이는 권력에 대한 두 인물의 대응 방식의 차이를 보여 준다. 그리고 이러한 꼬깔 참봉의 모습은 위 세대보다 권력에 더 민감하게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① 36. ③ 37. ⑤ 38. ④ 39. ⑤ 40. ④ 41. ③ 42. ⑤ 43. ③ 44. ④
45. ②

[35~39] 언어

[35~36] 병렬 구성의 개념과 특성

지문해설 : 이 글에서는 문장 구성 단위끼리 대등하게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병렬 구성의 개념과 의미적·문법적 특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하였다. 1문단에서는 단어, 구, 절 등의 문장 구성 단위와 그 단위들이 병렬 구성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조사, 어미 등에 대해 예를 들어 기술하였다. 2문단에서는 둘 이상의 요소의 위치를 바꾸어도 의미가 유지된다는 점, 절이 병렬 구성을 이룰 때에는 선행절에 쓰인 똑같은 말의 동일한 문장 성분을 후행절에서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병렬 구성의 특성을 예시하였다. 마지막으로, 3문단에서는 병렬 구성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으면 문장의 문법적 적절성을 따질 때 유용하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때 ‘병렬 구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요소들의 단위가 동일해야 함.’, ‘선행절과 동일하지 않은 문장 성분을 후행절에서 생략하면 안 됨.’, ‘대등하게 연결된 모든 요소가 동일한 성분과 호응해야 함.’의 세 가지 측면에서 예시 문장을 제시하며 문법적으로 적절한 문장에 대해 기술하였다.

[주제] 병렬 구성의 개념과 의미적 특성 및 문법적 적절성

35. 문장의 짜임

정답해설 : 두 문장에 쓰인 ‘과’는 접속 조사가 아니라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두 문장의 의미가 유지되는 것은 부사어의 위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는 같은 단위끼리 대등하게 이어진 병렬 구성이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해당 문장에 쓰인 ‘-고’는 앞뒤 절의 두 사실 간에 계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기 때문에 ‘나는 빵을 먹-’과 ‘기분이 좋아졌-’이 대등하게 연결되지 않았다. ③ 동일한 단위가 조사나 어미 없이 나열되는 것으로도 병렬 구성을 이룰 수 있다는 제시문의 설명을 통해 볼 때 해당 문장에는 명사 ‘팥’, ‘콩’, ‘쌀’이 나열된 병렬 구성이 있다. ④ 해당 문장에서는 ‘오래 걷기’와 ‘빨리 걷기’가 접속 조사 ‘랑’으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다. ⑤ 해당 문장에서는 ‘동생은 중학생이었-’과 ‘형은 대학생이었-’이 연결 어미 ‘-으나’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다.

36. 문장 차원의 오류

정답해설 : ㉠의 선행절에서 '체력 단련'과 '방을 청소한'은 단위가 동일하지 않은 요소이기 때문에 병렬 구성을 이루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의 후행절에서는 선행절의 '집을'과 동일한 문장 성분이 아닌 '집에'가 생략되어서 적절하지 않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의 선행절에서는 '체력을 단련하-'와 '방 청소'는 단위가 동일하지 않은 요소이기 때문에 병렬 구성을 이루기에 적절하지 않다(㉡). ㉡ ㉢의 후행절에서 '국이나 빵을 굽느라고'는 대등하게 연결된 모든 요소가 동일한 성분에 호응하지 않아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의 후행절에서는 선행절의 '집을'과 동일한 문장 성분이 아닌 '집에'가 생략되어서 적절하지 않다(㉢). ㉣ ㉤의 후행절에서 '국이나 빵을 굽느라고'는 대등하게 연결된 모든 요소가 동일한 성분에 호응하지 않아서 적절하지 않다(㉢). ㉥ ㉦의 후행절에서는 선행절의 '집을'과 동일한 문장 성분이 아닌 '집에'가 생략되어서 적절하지 않다(㉢).

37. 담화의 특성

정답해설 : ㉠이 가리키는 대상은 '엄마'이다. ㉡은 청유형이지만 맥락상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의 주체에는 '엄마'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의 주체는 '엄마'이고, ㉢이 가리키는 대상은 '엄마'와 '아빠'이다. ㉣ ㉤은 청자인 '엄마'를 가리키고, 재귀칭 대명사로 쓰인 ㉥은 '할머니'를 가리킨다. ㉦ ㉧은 안내문의 일부를, ㉨은 공간을 가리킨다. ㉩ ㉪은 오늘 떠나는 여행 이후의 여행을, ㉫은 오늘 떠나는 여행보다 앞선 이전의 여행을 가리킨다.

38. 품사의 특성: 관계언

정답해설 : 학습 활동으로 제시된 문장에서는 '나만을'에서 '보조사-격 조사'의 결합 유형이, '자기한테만'에서 '격 조사-보조사'의 결합 유형이 나타난다. ㉣에서는 '이것 뿐이라면'에서 '보조사-격 조사'의 결합 유형이 나타나고, '말로써는'에서 '격 조사-보조사'의 결합 유형이 나타난다.

정답 ㉣

[오답피하기] ㉠ '고양이만이'에서 '보조사-격 조사'의 결합 유형이 나타난다. '집이나 마'에 쓰인 '이나마'는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거나 어떻다고 말해지기에 부족한 조건이지만 아쉬운 대로 인정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 '큰누나에게까지'의 '에게까지'에서 '격 조사-보조사'의 결합 유형이 나타나고, '까지'에서 '보조사-보조사'의 결합 유형이 나타난다. ㉢ '규정만으로'에서 '보조사-격 조사'의 결합 유형이 나타나고, '이밖에는'에서 '보조사-보조사'의 결합 유형이 나타난다. ㉤ '우리만의'에서 '보조사-격 조사'의 결합 유형이 나타난다. '조금이라도'에 쓰인 '이라도'는 그것이 썩 좋은 것은 아니나 그런대로 괜찮음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39. 어휘의 변천

정답해설 : ‘즈스름하다(즈음하다)’에서 확인되는 의미 변화는 원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이동’이다. 주어진 자료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세 국어 ㉠에서의 뜻이 현대 국어에서는 사라졌는지, 현대 국어 ㉡에서의 뜻이 중세 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지를 따져야 한다. 이를 통해, 중세 국어 ‘즈스름하다’는 ‘사이에 있다’의 뜻으로 쓰였지만 현대 국어 ‘즈음하다’는 ‘특정한 때에 다다르거나 그러한 때를 맞다’의 뜻으로 쓰임을 확인해야 한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스시(사이)’에서 확인되는 의미 변화는 원래의 의미가 유지되고 새로운 의미가 더해지는 ‘확대’이다. 주어진 자료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세 국어 ㉠에서의 뜻이 현대 국어에서도 유지되는지, 현대 국어 ㉡에서의 뜻이 중세 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 이를 통해, 중세 국어 ‘스시’는 ‘거리나 공간’의 뜻으로만 쓰였지만 현대 국어 ‘사이’는 ‘거리나 공간’에 더해 ‘서로 맺은 관계. 또는 사귀는 정분’의 뜻으로도 쓰임을 확인해야 한다. ㉡, ㉢ ‘놀다(놀다)’에서 확인되는 의미 변화는 원래의 의미 중 일부가 사라지는 ‘축소’이다. 주어진 자료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세 국어 ㉡에서의 뜻이 현대 국어에서는 사라졌는지, 현대 국어 ㉢에서의 뜻이 중세 국어에서도 나타나는지를 따져야 한다. 이를 통해, 중세 국어 ‘놀다’는 ‘놀이하다’와 ‘연주하다’의 뜻으로 쓰였지만 현대 국어 ‘놀다’는 ‘연주하다’라는 뜻으로는 쓰이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 ‘즈스름하다(즈음하다)’에서 확인되는 의미 변화가 ‘이동’이므로, 이에 맞게 중세 국어 ㉡에서의 뜻이 현대 국어에서는 사라졌는지, 현대 국어 ㉢에서의 뜻이 중세 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지를 따져야 한다.

[40~45] 매체

40. 정보 전달과 설득

정답해설 : (가)에서 리포터는 현장 체험 학습을 온 △△고 학생을 인터뷰하면서 표준목을 본 소감에 대해 묻고 있다. 이를 통해 표준목에 대해 방문객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다는 계획은 실제 방송에는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리포터는 두 번째 발화에서 ‘이곳에 특별한 나무가 있다던데’라고 말하며 방송에서 소개하려는 나무가 특별함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첫 번째 이미지의 방송 화면에서 리포터는 나무 아래의 팻말을 손짓으로 가리키며 ‘아! 여러분,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 특별한 점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 첫 번째 이미지의 방송 화면 왼쪽 상단에 프로그램 제목인 ‘오! 이런 정보’와 방송의 소재인 ‘단풍’을 명시하고 있다. ㉢ 두 번째 이미지에서 관측 담당자가 ‘최근 3년 자료’를 언급할 때, 화면 왼쪽에 해당 내용이 담긴 그래픽(□□시 최근 3년 단풍 관측 정보)을 제시하고 있

다. ⑤ 리포터는 첫 번째 발화에서 ‘단풍 구경을 언제 가는 게 좋을지 알려 달라’는 시청자분들이 많았어요.’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시청자의 요청이 많았음을 밝히고 있다.

41.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정답해설 : (가)에서는 10종의 표준목 중 단풍나무에 대해서만 소개하고 있다. ‘밝은 누리’는 방송을 본 후 10종의 표준목에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10종의 표준목을 모두 소개해 줬다면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라고 언급하며 방송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정보가 있는 점이 만족스럽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들꽃씨앗’은 과학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사람이 눈으로 직접 판단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식물 계절 관측이 낭만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소개된 분야의 변화 가능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현재 방식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아기햇살’은 자신의 경험에서 가졌던 의문이 방송을 통해 해소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송 내용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들꽃씨앗’은 추가적인 정보 탐색 활동을 하지 않고 개인적인 감상만을 남겼다. ‘밝은누리’는 방송 후 추가 정보 탐색 활동은 했지만, 방송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했을 뿐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추천하고 있지는 않다. ⑤ ‘아기햇살’은 다른 매체(기사)에서 읽은 정보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가졌던 궁금증을 방송에서 확인한 정보를 통해 해소하고 있다. 또한 ‘밝은누리’는 방송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충하고 있다. 둘 모두 방송에서 확인한 정보를 다른 매체에서 들은 정보와 비교하고 있지 않다.

42.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정답해설 : (가)에서는 표준목이 □□ 지방 기상청에 있다는 것이 나타나 있고, (나)의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QR 코드 옆에 ‘기상청 누리집 바로 가기’라는 문구가 있다. 따라서 이 QR 코드로 연결되는 것은 단풍나무 표준목이 있는 유명한 산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기상청 누리집의 유명 산 단풍 현황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언급된 단풍 판단 기준(시작 20%, 절정 80%)을 (나)의 첫 번째 슬라이드의 왼쪽에 아이콘과 함께 ‘단풍 시작(20%)’, ‘단풍 절정(80%)’이라는 도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가)에서 설명된 기상청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나)의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관측, 판단 및 기록’과 ‘공개’로 나누고, 그 사이를 점선으로 분할하여 제시하고 있다. ③ (가)에서 웹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한 ‘유명 산 단풍 현황’ 정보를 (나)의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전국 유명 산 단풍 현황’ 지도로 시각화하여 보여 주고 있다. ④ (가)에서 관측 담당자는 일곱 번째 발화에서 ‘지금 웹 페이지

에 접속해 보시면 모두 '단풍 전'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정보를 (나)의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관련 문구와 그림을 함께 활용하여 알려 주고 있다.

4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㉔에서는 단풍이 시작된 시점에서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때까지의 소요 시간을 묻고 있으며, 관측 담당자 역시 이에 대해 '10일 내외'로 답하고 있다. 단풍이 절정이 되는 특정 시점에 대한 정보를 묻고자 하였다면 '언제'를 사용했을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㉔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인 '-려고'가 포함된 '-려고 하다'를 통해 오늘 방송에서는 '단풍 시작과 절정'에 관해 알아볼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② ㉔에 쓰인 '-던데'는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와 상관있는 과거 사실을 회상하여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이다. 이러한 '-던데'를 통해 ㉔에서는 특별한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기 위해 화자가 특별한 나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㉔에 쓰인 '에서'는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이를 통해, ㉔에서는 기상청이 '유명한 산'을 관측하는 주체임을 드러내고 있다. ⑤ ㉔에 쓰인 '-여'는 시간상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거나 방법 따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이를 통해, ㉔에서는 9월에 '유명 산 단풍 현황'을 웹 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때부터 11월까지 '수시로'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44. 뉴미디어의 특성

정답해설 : 승규는 지우의 질문("어디까지 얘기했어?")에 답하기 위해 '답장' 기능을 사용했다. 하지만 승규가 답장 기능으로 다시 노출한 메시지는 지우의 이전 메시지가 아니라, 연주가 올렸던 메시지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연주의 메시지에서 '(삭제된 메시지입니다.)'라는 표시에 이어 "미안. 잘못 썼어."라고 말한 것을 통해, '삭제' 기능을 이용하여 '잘못' 쓴 메시지를 제거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연주가 "행사 일정 확인했으면 이 메시지에 체크 표시해 줘."라고 요청한 해당 메시지 밑에 '☑2' 표시가 나타난 것을 통해 승규와 윤아가 '체크 표시' 기능을 이용하여 연주의 요청을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윤아가 "잠깐만, 지우가 ~ 다시 초대해 달래."라고 말한 뒤, '윤아님이 지우님을 초대했습니다.'라는 시스템 메시지가 나타난 것을 통해 '초대' 기능을 이용하여 대화방에 없던 지우를 다시 들어오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대화방 화면의 가장 윗부분에 '[공지]' 표시와 함께 링크가 고정되어 있고, 연주가 "'작가와의 대화'에서 사용할 ~ 링크를 공지로 설정했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공지' 기능을 이용하여 '온라인 가상 게시판 링크'

정보를 화면 상단에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45.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정답해설 : (가)에서 연주가 “그런데 영상들만 올리면 나중에 무슨 내용의 영상인지 구별하기 힘들 것 같아.”라고 말하자, 지우는 해결책으로 “그러면 게시물에 무슨 영상인지 써 두자.”라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나)의 가상 게시판 1에서 영상 밑에 각각 ‘책 소개 영상’과 ‘작가 소개 영상’이라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작성자에 해당하는 ‘연주’와 ‘지우’의 이름이 노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영상 구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서 논의된 해결책인 내용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윤아와 승규는 영상과 글의 양식 차이를 이야기하며 구역을 나누자고 하였다. 그리고 (나)의 가상 게시판 1에서 윤아와 승규의 대화를 반영하여 ‘소개 영상’과 ‘짧은 소감’ 구역을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③ (가)에서 윤아와 지우는 소감 분류를 위해 주제어를 적은 게시물들을 올려 두고 학생들이 그 게시물에 댓글로 소감을 적게 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나)의 가상 게시판 1에서 윤아와 지우의 대화를 반영하여 ‘인물’, ‘결말’이라는 주제어를 적은 게시물에 댓글이 달릴 수 있게 하였다. ④ (가)에서는 학생들이 질문 작성을 막막해할 것이라는 연주의 말에 대해 윤아가 예를 몇 개 써서 올리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의 가상 게시판 2에서 연주와 윤아의 대화를 반영하여 예시 질문 두 개가 올려져 있다. ⑤ (가)에서 승규는 가상 게시판 2가 밋밋해 보이지 않도록 행사 관련 이미지를 배경에 넣자고 제안하였으며, 연주는 작가님의 책 이미지를 넣자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의 가상 게시판 2에서는 승규와 연주의 대화를 반영하여 작가의 책 ‘우리의 초록’의 이미지가 배경으로 삽입되어 있다.